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김건희의 국정원 자리 제안은 현대판 매관매직!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규탄한다!”



▲ 기자회견 중인 서영교 단장과 전용기 수석대변인, 김승원·염태영 본부장, 이연희·박정현·박균택 위원

14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의 국정원 자리 제안은 현대판 매관매직임을 지적하고 수천억대 방산 대기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끝)



● 서영교 단장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대외신용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변호인들도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힘당은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위가 극에 달했다. 경고합니다.

명태군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명태군 게이트에서 시작됐다고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법관도 잡아들이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내란 행위, 꼭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명태균과 김건희,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홍준표, 명태균과 오세훈의 보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과 방위산업, 그리고 김건희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까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루는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 관련해서 7천억의 예산이 김건희•명태균•윤석열•김영선에 의해서 주물러진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하나,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국정원 자리는 어때요?”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매관매직입니다. 불법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그리고 국정원 자리를 줍니까? 그리고 김영선에게는 김상민을 지원하라며, 자리를 내놓으라며 공기업 사장 자리와 장관 자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매관매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돌아오면서 첫마디로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을 무혐의 쳤던 김건희의 홍위병 이창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번 명태균게이트 관련해서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육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매관매직 관련 카톡과 텔레그램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은폐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심우정 등 다시 경고합니다.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검을 저희가 발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을 또 거부했습니다. 위헌하고 위법한 최상목의 특검 거부권,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

충격적인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또 드러났다!
김건희의 국정원 자리 제안은 현대판 매관매직,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 하나 더 추가되었다!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충격! 김건희 명태균에게 국정원 자리 제안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한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선거 지휘 대가로 주고 받은 김영선 공천과 국정개입,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제안에 더해, 또 김건희로부터 국정원 요직을 제안받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KBS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나중에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통일에 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김여사가 국정원 자리는 어떠냐고 자신에게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주장은 명태균과 함께 일했던 공익제보자 강혜경씨, 명태균과 친분이 있는 복수의 지인들도 들었다고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개 사인인 김건희가 국가 핵심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인사 등 윤석열 정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V0’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중대한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실 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검찰은 김건희·윤석열을 수사하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결다리만 굽으며 철저한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의 사병임을 자처해 온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건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하는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방해와 회피로 일관하는 편향된 모습을 보여왔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명태군도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과 야5당도 공동으로 명태군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였고, 최상목 내란대행은 또다시 명태군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용서받지 못할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김건희의 국정원 인사 제안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이 배우자 김건희에 의해 장악되어 좌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것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의 인사 결정이 사인인 김건희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대통령실을 포함 국가 요직에 김건희 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김건희 인사개입 수사에 착수하여, 김건희의 국정원 인사 개입을 포함 국정 전반의 인사개입을 통한 국정 농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민주당은 최상목 내란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엄중 규탄하며, 특검을 재추진하여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실체는 무엇인가? 국민이 뽑은 정권이 맞는 지, 국정운영의 주체는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아니면 명태군인지, 집권 3년 동안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괴한 기행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과 김건희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온갖 잔꾀를 부리고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궤변으로 방어하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있다.

우리는 특검·국정조사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은 권력 사유화가 허용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촉구, 특검 재추진,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운영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